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5년 06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3,065,660원

-채권모투자신탁 991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675억 원

펀드유형 혼합형, 종류형,추가형,개방형, 모자형
(2016년 9월 20일 모자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15년 08월 07일)

- 클래스 A : 2015년 08월 07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11일
- 클래스 S : 2015년 08월 18일
- 클래스 S-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18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 회사채 2~3년) 20% + Call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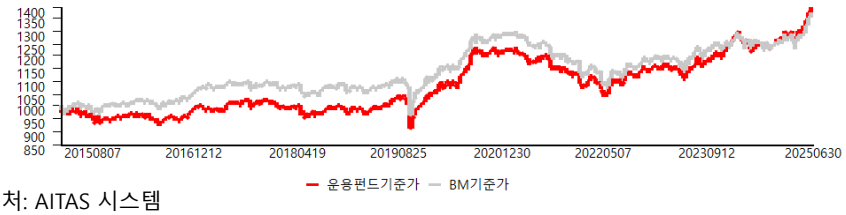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5.31%	9.97%	12.51%	8.46%	21.31%	29.60%	33.50%	39.45%
클래스 A	5.24%	9.72%	12.01%	7.47%	19.12%	26.12%	27.52%	26.96%
클래스 C-P2(연금저축)	5.24%	9.73%	12.02%	7.47%	19.11%	26.11%	27.53%	27.17%
클래스 S	5.36%	10.28%	12.38%	8.26%	20.41%	28.26%	-	18.00%
클래스 S-P2(연금저축)	5.26%	9.91%	12.55%	8.40%	21.10%	-	-	21.95%
벤치마크	4.69%	8.55%	10.90%	7.30%	15.10%	22.12%	23.59%	36.5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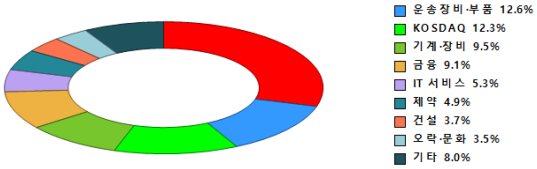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6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6월말, 주식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1.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1.8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KOSDAQ	4.5
하이브	오락·문화	3.5

종목명	업종명	비중(%)
현대건설	건설	3.5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2.3
감성코퍼레이션	KOSDAQ	2.2
일진전기	전기·전자	2.0
삼성중공업	운송장비·부품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5년 06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9925% (판매 0.5%)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0.9225% (판매 0.43%)
- 클래스 S : 총 연 0.7425% (판매 0.25%)
- 클래스 S-P2(연금저축) : 총 연 0.692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3%,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7%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35% 이내
- 클래스C / C-E / C-P / C-P2 / S / S-P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KOSPI는 전월 대비 13.86% 상승한 3,071.70pt, KOSDAQ은 6.42% 오른 781.5pt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협상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며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가운데, 국내 대통령 선거 이후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조기 개입 등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경 기대감과 함께 신정부 주요 공약인 AI 고속도로,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이슈가 본격 논의되면서 인터넷, 플랫폼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전 투자 및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대감 역시 유틸리티 업종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1% 하락한 1,356.4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보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7.11% 상승한 65.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2조 7,37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 8,367억 원, 5,49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6월 시장은 대선 종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대가 부각되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금리는 하방이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및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물가 우려를 자극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역시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월중 대내외 인하 기대가 모두 약화되며 금리는 하단이 제한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2.0bp 상승한 2.455%,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3.5bp 상승한 2.80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 국내 주식시장은 전월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이슈 재부각,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 등 대외적 요인 또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및 내수 부양책 등 정책에 관한 기대는 여전히 작용하며 증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하반기 및 2026년 이익 모멘텀에 기반한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 총재가 인하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시장의 완화 기대는 다소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유가 변동성과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물가 우려가 남아있는 점은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를 제약하는 변수이지만, 국내는 ① 신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도 경기 반등 모멘텀이 미약하고, ②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가 확인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는 점차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신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2026년 예산안 편성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경계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완화 기대, 수급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이 혼재된 가운데, 정책 기대가 하단을, 수급 부담이 상단을 제한하는 구조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고 3년 2.30~2.55% 전망, 국고 10년 2.60~2.95% 전망하며,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듀레이션 확대 대응할 계획입니다.

수익률 곡선에서 대내 확장 재정 기조와 대외 재정적자 확대 우려는 커브 스티프닝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정부의 정책 집행이 집중될 7~8월 중에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50bp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경계감이 점차 완화되면, 스프레드는 30~40bp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커브 흐름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 및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스티프닝 또는 플래트닝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 10-3년 스프레드 30~50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15~5bp 전망하며, 커브 레인지 박스권 매매 대응 계획이나 밴드 이탈 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속 채권형 자금 유입, 레포 펀드 중심 매수세, 기업 이자비용 및 조달 부담 완화 등이 작용하며 강보합 내지 완만한 축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발행시장은 3~5월(수요예측 참여 수요 모집 평균 3.12배,)과 6월(2.75배)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섹터 및 개별업체 간 차별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특수/국고 3y Spread 15~25bp, 은행/국고 3y Spread 20~30bp, 회사AA-/국고 3y Spread 45~55bp 전망, 여전AA-/국고 3y Spread 48~58bp 전망하며, 선별된 종목 위주 BM대비 확대 대응 유지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